

방송원고 묶은 책 쏟아진다

심야 및 아침 라디오프로가 주된 대상

침차 높아져만 가는 TV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살뜰하고 소련한 애정을 지닌 청취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라디오방송. 최근 이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를 뒀던 원고나 독자들이 보낸 글들을 모아 묶은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새벽을 열며」, 「나의 신혼일기」, 「별밤 비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모음」, 「아침무지개가 말을 할 때」 등이 그것으로 이들 책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나 방송진행자의 인기도와 맞물리면서 독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디오방송 원고를 묶은 책의 출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78년 MBC의 '여성살롱' 진행자 임국희씨가 청취자들이 보내온 편지, 수필 등을 모아 펴낸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 1~4권(전예원)이 성공을 거두면서부터였다. 「빠르고 딱 부러지는 말」로 유명한 진행자 임국희씨와 프로그램 자체의 인기에 힘입은 「바구니에...」의 성공은 방송용 원고 출간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했었다.

이후로 꾸준히 출간되어온 이러한 책은 대체로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아침방송과 청소년 대상의 심야방송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성살롱'에서 인생상담 코너를 맡았던 황산성 변호사가 청취자들의 상담 편지와 자신의 회신을 모아 엮은 「황산성 인생 상담집」 1, 2(전예원), 「여성시대」의 진행자 이종환씨와 박우성 PD가 함께 엮은 「우리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은」(전예원) 등은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방송원고를 묶은 대표적인 책이다.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이야기 등으로 엮어가는 심야방송의 원고가 책으로 나온 것에는 「별밤일기」, 「이건 비밀이걸랴요」, 「밤의 디스크소 글모음집」 등이 있다.

「별밤일기」(문학아카데미), 「이건 비밀이걸랴요」(불후문고)는 모두 '별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 이문세씨와 김용관 PD가 엮은 것으로 이중 「별밤일기」는 '별밤'이 마련한 백일장 코너를 통해 발표되었던 청소년들의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수록한 것이고 「이건 비밀이걸랴요」는 독자들의 편지를 모은 책. 「밤의 디스크소 글모음집」(청맥) 역시 이종환씨가 청취자들의 편지와 방송 원고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상의 책들은 그 모태가 되는 방송자체가 대중적 인기를 탄탄하게 굳힌 것들이며, 책의



내용 또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청취자들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청취자가 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독자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방송시간대와 주 청취대상은 다르지만 '싱글빙글 쇼'의 진행자인 강석, 김혜영씨가 펴낸 「나의 신혼일기」 1, 2(명서원)도 비슷한 형태의 책. 청취자들이 보내온 신혼의 재미있고 상큼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방송원고를 모은 책의 출간에 있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 중의 하나로 비전문방송인이 진행하거나 참여하는 교양프로그램을 모태로 한 책의 출간을 꼽을 수 있다.

이미 5권제의 책을 펴낸 「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위한 홍사덕 칼럼」(햇빛)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해의입양아 문제」, 「부동산 투기」, 「5공 청산」 등 정치인인 홍사덕씨가 방송을 통해 발표한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사려 깊은 의견을 담고 있다.

현재 한돌 성결교회의 담임목사인 용혜원씨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모음」(목민)은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된 에세이 원고를 묶은 책으로 젊은이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한 종교인이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은 것이다. 한국 청소년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윤구씨의 「새벽을 열며」(웅진) 역시 KBS 라디오 「젊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었던 칼럼을 모은 책. 새벽에 깨어 일어나 있는 근로청소년,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는 에세이들을 모았다.

이밖에도 KBS 수필문학 동인들이 「시와 수필과 음악사이」라는 방송을 통해 매일 밤 읽혀졌던 수필들을 모아 엮은 책 「아침무지

개가 말을 할 때」(대림기획)가 있다.

라디오 방송원고의 출간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대해 윤일숙 사장(햇빛출판사)은 "방송용 원고의 경우 현장감이 있고 친근감을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의 인기가 책 판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여기에 참여한 다. 특히 책을 만들고자 해도 원고를 구하기 힘든 요즘 우리 출판사들의 실정에서 방송용 원고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출판사측의 이러한 사정과 함께 방송담당자들에게 있어서도 방송용 원고의 출간은 "팬서비스나 방송 이미지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회적인 방송의 내용을 활자로 옮겨 놓는 이 작업은 이미 다른 매체들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매체MIX로 볼 수 있다"는 김선욱 차장(KBS 라디오 편성국)은 "상업적 이익만을 노려 출판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까지 책으로 만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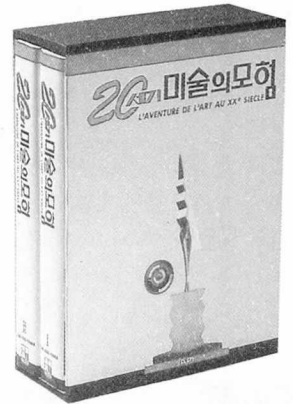
편년식 구성의 현대미술 조감도

페리에 엮음 「20세기 미술의 모험」

프랑스 국립최고장식미술학교 교수이자 미술평론가인 장 루이 페리에가 편집하고, 아세트그룹의 센스출판사에서 출간된 「20세기 미술의 모험」(전2권) 한국어판이 정식 판권계약 아래 도서출판 에이피인터내셔널에서 발행됐다.

흔히 단절과 도전, 혹은 스캔들로 표현되며 난해한 것으로만 알려져 왔던 20세기 현대미술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편년체적 편집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20세기가 문을 연 1900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매해를 한개 단원으로 분리, 모두 90개 단원으로 나눈 가운데, 그 해에 펼쳐진 조형미술 및 건축예술의 전세계적 파노라마를 풍부한 원색화보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어 특히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현대미술을 이끌어온 작가들과 그들의 걸작품을 비롯해 주요 미술운동과 이론들, 미학사조와 그에 영향을 끼친 철학적 저술들, 각종 성명서 및 주요 전시회와 작가



들간의 교류 등 20세기를 관통하는 현대미술의 주류와 지류들을 짚고 쉬운 문체 속에 놓치지 않고 포착함으로써 이 책은 사진과 연감, 미술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권말부록으로 용어사전, 인명사전, 색인 등을 수록해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 제1권이 1900~1949년까지를, 제2권은 1950~1989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번역은 김정희씨가 맡고 미술평론가 이일교수가 최종감수를 맡았다.

API/B4번형 / 총928면 / 14000원